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	2018년 11월 30일(금) (총 4쪽)	담당부서	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
		담당자	구경태 팀장 (043-880-5691) 이주화 조사관 (043-880-5763)

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

-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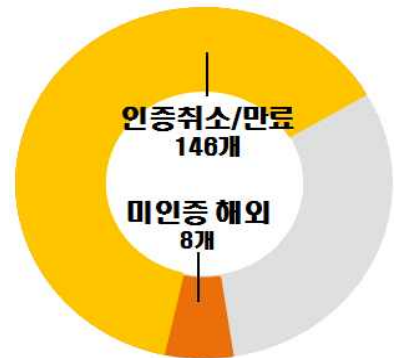
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‘주방용 오물분쇄기’의 사용이 늘고 있다. 그러나 인증이 취소·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

□ 온라인 유통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불법 제품

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인증)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·수입·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.

[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실태]

그러나 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, 154개(62.3%)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146개는 ‘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’됐고, 8개는 ‘미인증 해외’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.



또한,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“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”, “수거·매립·운반은 No”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.

[조사개요]

- (조사대상)** 5개 통신판매중개업자*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**
 - * G마켓, 옥션, 11번가, 인터파크, 쿠팡
 - ** 각 사이트별로 판매자와 모델이 같은 경우 1개 제품으로 봄.
- (조사기간)** 2018. 7. 16. ~ 7. 31.

□ 분쇄회수식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% 이상 회수·배출해야

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,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%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.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49명(98.0%)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불법 제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□ 음식물 처리기, '품질·A/S', '취소·환급'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많아

한편, 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1372소비자상담센터*에 접수된 '음식물 처리기'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,907건**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'품질·A/S' 관련이 896건(47.0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취소·환급' 관련 647건(33.9%), '부당행위' 81건(4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*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(국번없이 1372)로 소비자단체·한국소비자원·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상담 수행

** 연도별 현황 : 2015년 627건, 2016년 563건, 2017년 717건

[음식물 처리기*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]

[단위 : 건, (%)]

구분	품질·A/S	취소·환급	부당행위	가격·요금	제품 안전	기타	계
건수 (비율)	896 (47.0)	647 (33.9)	81 (4.2)	30 (1.6)	21 (1.1)	232 (12.2)	1,907 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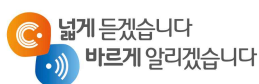
* 음식물 건조기, 분쇄기, 액상 분해기 등

□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불법 제품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.

※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: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, 11번가, 이베이코리아(옥션, 지마켓), 인터파크,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

또한,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▲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▲불법 개·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.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% 이상을 회수·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「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 기준」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< 붙임 >

1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현황

- (접수 현황) 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‘음식물 처리기’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,907건으로 연평균 600건 이상 접수됨.

[음식물 처리기*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]

(단위 : 건)
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	계
건수	627	563	717	1,907

* 음식물 건조기, 분쇄기, 액상 분해기 등

- (유형별) 유형별로는 ‘품질·A/S’ 관련이 896건(47.0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취소·환급’ 관련 647건(33.9%), ‘부당행위’ 81건(4.2%), ‘가격·요금’ 30건(1.6%), ‘제품 안전’ 21건(1.1%) 등의 순이었음.

[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]

[단위 : 건, (%)]

구분	품질·A/S	취소·환급	부당행위	가격·요금	제품 안전	기타	계
건수 (비율)	896 (47.0)	647 (33.9)	81 (4.2)	30 (1.6)	21 (1.1)	232 (12.2)	1,907 (100.0)

□ 주요 사례

○ (품질·A/S) 품질·서비스 불만, A/S 지연·거부 등

-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여 사용한지 보름 만에 악취가 심하게 나 A/S를 받았음. 이후 계속 하수구 쪽에서 악취가 나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설치 부위인 싱크대 쪽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.
- B씨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설치한 음식물 처리기에서 2회 누수가 발생하여 A/S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 없다며 거부함.

○ (취소·환급) 계약해지 거부, 계약불이행,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

- C씨는 음식물 처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이사를 하게 됨. 이사한 곳이 이전 설치가 어려운 곳으로 확인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함. 사업자는 25만원 상당의 다른 제품을 설치할 것(일시불 지급)을 권유한 후 C씨가 수용하지 않자 위약금으로 188,300원을 요구함.
- D씨는 음식물 처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함. 계약 당시 3개월마다 필터를 보내주기로 했으나, 1년 후부터 필터를 보내주지 않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. 이에 사업자가 미납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이관함.

○ (부당행위) 사업자 폐업, A/S 불가에도 렌탈료 계속 출금 등

- E씨는 음식물 처리기를 렌탈하여 사용 중 고장이 나 A/S를 받고자 했으나 사업자가 폐업하여 A/S를 받을 수 없었고, 계약해지도 불가능했음. 그러나 매월 렌탈료가 출금되고 있음.

□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유효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.

*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- 기술인증/지원 -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- 하단에서 '인증제품 및 판매금지제품 현황' 확인 가능



□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%는 회수하여 배출한다.

* 「하수도법」 제80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,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소비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

□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'일체형이 아닌 이미지' 또는 '소비자의 회수·배출 의무에 위반하는 문구'의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개조 제품일 수 있으니 유의한다.

* 구매 시 주의해야 할 광고 예시

이미지		문구	
적법 제품	불법 제품	적법광고	부당광고
		음식물 쓰레기의 80% 이상은 사용자가 회수 배출해야 합니다.	음식물 쓰레기 아직도 집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! 수거·운반·매립은 NC 가장 경제적인 대안

□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전 사후관리 기간·방법 등을 확인한다.

*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(www.gdis.or.kr) 공지사항에서 휴·폐업한 업체가 생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A/S 가능업체 안내 참고